

## 성년을 맞은 한농연의 새로운 도약을 이뤄냅시다!

제 스스로를 되돌아보니 1월 2일 시무식 직후부터 정신없이 달려온 2007년이었습니다. 더욱이 지난 1년을 차분히 마무리해야 할 시점이지만, 정대근 전 농협중앙회장의 대법원 판결 이후 12월 27일 새 농협중앙회장 선출을 위한 선거를 앞둔 중요한 시점이 다가왔습니다.

농어업용 면세유 시한 5년 연장을 위한 서명운동과 토론회, 한-미 FTA 저지 국토대장정, 6월 20일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의 2차 총궐기대회, 뜨거운 여름의 각 시도 농업경영인대회, 11월 5일 한농연 대선후보 초청 토론회... 12월 정기총회를 앞둔 시점에서 생각하면, 우리 한농연이 많은 일을 했습니다만, 돌아켜볼 때 저와 임직원들은 모자란 점도 많았고 아쉬운 점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한농연을 만들고 함께 이끌어 가는 임직원 및 회원 동지 여러분의 땀과 눈물, 그리고 열정과 노고가 있었기에 격동의 2007년, 그리고 한농연 20년의 역사를 개척해 올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역경을 이겨내고 스무살 성년의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해 주신 회원 동지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회원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를 통해, 우리 한농연은 아름답디 긴장한 청년의 모습으로 자라날 수 있었습니다.

회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임직원 여러분! 지금의 모습과 처지에 안주하지 말고, 거세지는 도전에 당당히 응전할 수 있는 한농연 조직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17대 대선 이후 내년 봄 총선으로 이어지는 숨가쁜 정국에서, 한-미 FTA 국회비준과 농협 개혁 문제 등 해묵은 농정과제들이 줄지어 제기될 것입니다.

2차 대전 때 윈스턴 처칠이 말했듯이,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피와 땀과 눈물입니다!” 12월 5일, 창립 20주년 기념식에서 많은 분들이 말씀해 주셨듯, 시대는 우리 한농연 조직과 회원의 역할과 책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힘과 지혜를 모읍시다. 조직의 화합과 발전을 위한 우리 모두의 역할을 해냅시다. 농업의 근본적인 회생을 위한 작지만 의미 있는 실천의 길을 얘기하고 찾아냅시다. 이를 통해 국민과 함께 하는 새로운 농권운동과 농업의 대안을 만들어냅시다. 성년을 맞은 우리 한농연에게 4,700만 국민들이 요청하는 과제입니다. 아무리 느려도 한 걸음씩 함께 나아가간다면, 보다 좋은 우리 농업, 농민들이 웃는 세상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그렇게 우리 한농연 12만 회원 모두의 새로운 도약을 이뤄냅시다.

